

# 동남아 수출 전진 기지 구축

— 중국 상해, 베트남 공장 확장 —



## 이 응 세

### 에이스전자(주)대표이사

1983년 세기전자기업사로 출발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작은 외주  
전자사업부터 시작하여 대기업  
OEM 사업으로까지 탄탄하게  
성장하여 마침내는 자체  
MODEL을 가지고 생산·수출하고  
있는 회사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회사가 있다. 바로 충북

청주 신봉동에 자리하고 있는  
ACE전자다.

현재 종업원 150여명이 뿔뿔  
뿔뿔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빠앗고 있는 전자 시장을  
국내에서 확고히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서울  
사무소 신설로 국내외 영업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중국/월남

#### 회사개요

설립일 : 1987년 12월 24일

대표이사 : 이 응 세

전화번호

본사 : 0431)66-1011/4

서울사무소 : 02)515-4077

본사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87-3

서울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58-6 진성빌딩 502호

자 본 금 : 2억원

생산품목 : Air Cleaner, cordless

Telephone, Pager, 냉장고용

탈취기, Walky-Talky,

CD-Pack, UHF/VHF 수신기

공장을 통해 동남아 일대 수출을  
전담하는 전진기지로 꾀하는  
사업 확장의 계획을 세워 작은  
중소기업으로써 알찬 내실을  
꿈꾸는 회사로 소문이 나있다.

현재 ACE의 자사 제품으로는  
Air Cleaner/냉장고 탈취기,  
각종 CB 무선기(Hand Held/  
Mobile Type)49MHz 무선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49MHz Walky-Talky는 Hand  
Free용으로써 마이크와  
Headphone을 머리에 고정시킬  
수 있으며 따로 손이 필요없이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는  
제품으로 산업현장/ 레저/  
스포츠/ 일반가정 용으로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 짠  
제품으로 많은 수출상당이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으로 인정 받고 있는 제품이다.

동사는 매출 실적이 말해 주듯이 1994년 47.8억, 올해 56억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2~30% 증가세에 있다.

1997년 까지는 50%로 매출비중을 늘린 계획이며 121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용세 사장은 “특히 중국 상해와 월남 등 동남아 공장을 확장해서 통신기기 분야 Hi-Tech 개발과 투자로 부가가치가 있는 모델을 개발 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ACE전자의 세계화 전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통상산업부로부터 유망 선진기술

업체로 지정 받기도 해 기술개발 의욕을 더 한층 고취시키고 있다.

에이스 전자는 새 창조와 실천, 사랑과 봉사라는 사훈이 보여 주듯이 전 직원이 화목한 분위기를 보여 준다. 이용세 사장은 직원들에게 항상 사훈을 이야기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생활철학을 강조 하곤 한다.

또한 경영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항상 미래를 통찰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업무 스타일 및 회사의 경영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될때 세계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전자산업 지원정책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품 및 재료산업 육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점은 완제품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기업에게는 특히 중요하다”고 이용세 사장은 밝힌다.

최근에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이 세계무역에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외에서 완제품과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세계적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활발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전자산업이 선진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하기도 했다.

